

TV 나온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 대북 으름장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외교 실패 땀 남은 건 군사옵션 뿐”

“국방 장관만 북한 상대 할지도”

“핵무기 위협 용인 않을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17일(현지시간) 방송에 출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군사옵션을 거듭 거론했다. 헤일리 대사는 “가능성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테이블 위에는 군사옵션도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책임감 있게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외교 옵션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대북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이어간다면 어쨌든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경고발언에 대해서도 “엄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사흘 만에 북

안보리 제재 한계 실감 ‘군사옵션’ 무게 실어 외교적 해법 여지 남겨

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옵션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지난 15일에도 백악관에서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사옵션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헤일리 대사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7일 ABC방송 ‘디스 워크’, 폭스뉴스 선데이에도 잇따라 출연해 북한 김정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

럼프 대통령은 김정정은 정권이 미국과 우리 시민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와 외교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옵션을 준비하는 것에서, 정말 대단히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옵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평화적인 압박 작전”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흡수통일), (북한 공격을 위한) 군대 파견 등 4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포 노’(four nos)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서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유엔 개혁’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유일한 여황제 무축천

축천무후(則天武后, 624-705)의 본명은 무조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다. 당 고종의 황후로 국정을 사실상 좌지우지 했고 690년에는 당의 국호를 주(周)로 고쳐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간 천하를 통치했다. 그녀는 장안에서 당의 개국공신 무사화의 차녀로 태어났다. 무사화는 목재상으로 거부가 되었고 당 고조 이연의 진양거병에 참여해 건국에 기여했다. 이 공으로 공부상서, 형주도독을 역임했다. 637년 14살 때 당 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왔다. 태종 사후 감업사 절에 출가했다가 고종 즉위후 궁으로 돌아왔다. 뛰어난 미모와 지략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왕황후를 제치고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황후가

그녀는 잔혹한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했다. 대표적 폭리 주종, 내준신, 색원례 등을 등용해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황족과 귀족을 처벌했다. 쇠고리로 죄수의 머리를 조인 다음 쇠고리 사이에 나무쇄를 박아 머리가 터져 뇌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박아 넣었다고 한다. 뜨거운 쪼물을 코안에 부어넣기도 했다.

신분과 가문에 상관없이 유능한 신진 인재를 과감히 영입했다. 세대교체와 지배세력의 변화를 통해 정통 귀족 집단과 신승 관료집단이 경쟁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광초원제(廣招賢才) 정책을 펴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탁했다. 이소덕, 적인걸, 요송, 송경 등이 후일 재상의 지위에 오른 대표적 인재들이다. 그녀는 황제가 되자 친정 조카 무승사를 재상으로 임명했

잔인한 속청 정치 vs 당 전성시대 주역

되는 길은 녹록치 않았다. 고명대신인 장손무기, 저수량 등의 반대가 심했다. 특히 태종의 유지를 받은 저수량의 반대는 격렬했다. “무씨는 선제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 천하의 이목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극력 반대했다. 결국 “황후를 새로 세우는 것은 왕실 집안의 일”이라는 장군 이세적의 주장에 힘입어 어렵게 황후가 되었다. 4남 2녀를 낳았다.

다.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소덕은 “재상의 권세가 너무 커 위험합니다”고 직언해 조카를 파면시켜 무씨의 전횡을 견제했다. 적인걸은 국로(國老)라고 불리며 치세 말년 핵심 참모가 되었다. 그는 황제의 꿈을 잘 해몽해 조카 대신 자신이 낳은 아들인 이현을 다시 황태자로 세우도록 만들었다. 그가 죽자 그녀는 “조정이 탐민 것과 같다”고 크게 탄식했다고 한다. 요송과 송경은 후일 현종을 보좌해 개원지치(開元之治)를 가능케 만든 뛰어난 관료였다.

왕족과 관료에 대한 속청에도 정권이 잘 지탱된 것은 민생의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귀족들의 토지경병을 억제했다. 살기 어려운 도주한 농민들이 귀농토록 여러 가지 구제 대책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궁중의 권력 투쟁은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과 같았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을 달린다. 천하의 요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고 당의 전성시대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평가도 있다. 역사가 오함은 “축천 무후는 당 태종이 세운 왕조의 기반을 강화, 발전시켰다. 50년간 축천의 활약이 없었다면 현종의 개원지치도 역시 없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치통감은 그녀가 “정사를 명철, 선단했다”고 평하였다.

NYT “북한, 미사일 연료 생산 기술 있다”

15일 발사 미사일 사용 확인

북한이 미사일에 사용하는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이라는 독성 액체연료를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외부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발전했으며, 대북 원유제재를 허기에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지난 15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UDMH를 연료로 쓰는 것으로 정찰 위성 분석 결과 드러났다.

티머시 배럿 미 국가정보국(DNI) 대변인은 북한의 UDMH 생산에 관한 NYT 질의에 “북한이 보여준 과학·기술 능력을 토대로 볼 때 아마도 북한은 UDMH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UDMH를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 북한이 UDMH의 국내 생산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UDMH 원료를 제공하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제재나 방해 공작으로 대북 연료 공급을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수년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UDMH와 그 비밀 제조법, 생산 장비를 얻었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다고 NYT가 인용한 당국자들과 과학자들은 전했다.

중국에 위성과 탄두를 쏘아 올릴 때 여전히 UDMH를 사용하며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 독성 물질을 수출해왔다. 중국은 북핵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항상 부인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와 가스 등 가정·차량용 보충 연료의 대북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UDMH는 2012년과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미 정보기관과 의회에서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면 UDMH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중당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북한이 UDMH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며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어느 나라에서 연료를 받고, 연료를 얼마나 많이 비축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UDMH를 공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는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북한이 강력한 미사일 연료와 연료를 모두 갖췄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나, 미 정부가 북한의 연료 접근을 차단하려고 긴급하게 움직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일본, 北 미사일 요격 미사일 훗카이도 상공 추가배치 추진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이 잇따라 상공을 통과한 훗카이도 지역에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엇 1기를 훗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며 빠른 19일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훗카이도 남부 오시마반도 에리모미사키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낙하시킨 바 있다.

항공자위대는 전국에 34기의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있지만, 훗카이도 주변에는 배치된 패트리엇이 적어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오시마반도 주변에는 훗카이도 중부 지역의 지토세기지와 훗카이도 남쪽 혼수의 북쪽 끝인 아오모리현 사리키 기지에만 패트리엇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능)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능)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능)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